

솔비톨, 럭키 독주에 선일포도당 제동

수요 2만7000톤 중 선일포도당 29% 추격... 사카린 무해 판정 영향 예상

국내 솔비톨시장이 선일포도당의 판매 확대에 따라 럭키의 독점공급에서 이원공급체제로 전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국내 솔비톨시장은 연산 2만7000톤 규모로 확대됐으나, 선일포도당이 참여함에 따라 럭키가 주도 해온 가격체계에 제동이 걸려 솔비톨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럭키(대표 최근선)는 연산 1만7000톤(태국 현지공장 6000톤 포함 2만3000톤) 규모의 솔비톨을 생산, 국내 총 2만7000톤 규모의 시장중 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89년 솔비톨시장에 진출한 선일포도당(대표 김경환)은 6000톤으로 29%를, 태평양화학(수입)은 4000톤으로 14%를 점유하고 있다.

타입별로는 럭키가 액상 1만1000톤·분말 6000톤, 선일포도당은 액상만 6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평양화학은 액상 2500톤·분말 1500톤을 유럽 등지에서 수입, 전량 자가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국내 솔비톨시장 현황(1992년)

(단위:톤, %, 원/kg)

업체명	액 상		분 말		합계	M/S
	판매량	가격	판매량	가격		
럭 키	11,000	470~600	6,000	850(식첨) 1200~1300(의약)	17,000	57
선 일 포도당	6,000	470~600	—	850(식첨) 1200~1300(의약)	6,000	29
태평양 화 학	2,500	450 (CIF기준)	1,500	1,150	4,000	14
합 계	19,500	—	7,500	—	27,000	100

주) 럭키는 국내생산분, 태평양화학은 수입분을 나타냄

태평양화학(대표 한동근)의 주 수입선은 프랑스의 롱프랑과 독일의 세레스타 등이며, 일부 수입상들도 솔비톨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11월 현재 국내 유통단가는 액상이 kg당 450~600원선에, 분말은 식품첨가용 850원, 의약용 1200~13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년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격이 정체된 것은 선일포도당의 국내시장 진출로 솔비톨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평양화학의 솔비톨 수입가격은 CIF

기준 액상 450원, 분말 115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카린이 미국 FDA로부터 무해판정이 남에 따라 솔비톨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솔비톨은 사카린 유해논란과 때맞춰 수요가 확대돼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 당뇨 및 비만환자용 감미제로 사용되며, 각종 식품·치약·담배·의약품 등의 습윤조절 및 단백질 변성방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치약용 수요가 절대비중을 차지, 그동안 치약 생산·공급을 독과점해온 럭키의 솔비톨시장 독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화학저널 1992/12/15>